

일본의 사무직 노동자들이 격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소할 근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출생률 감소로 노동인력 증가 전망이 어둡기만 한 일본을 '로마의 멸망 증후군' 속으로 빠뜨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널리 떠돌고 있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초인적인 근무시간에 쫓겨 가족을 소홀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최근 작성된 정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출생률은 최근 수년간 격감추세를 보여 일본 문명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도쿄의 전형적인 사무직 노동자는 하루 24시간중 16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낸다. 이들은 아침 7시에 교외의 집을 나서 만원열차를 타고 1시간 가량 꼬박 섰 채 도심의 직장으로 나간다.

이른 아침 출근한 남편들은 퇴근후 밤새껏 동료 및 상사들과 술독에 빠져 있다가 새벽녘에야 만취한 몸을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수도 종종 있다.

만성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이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버스, 전철 등에서 틈만 나면 눈을 붙여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비타민, 카페인, 니코틴 성분을 혼합해 만든 이른바 '스태미너 음료'로 피로를 달랜다.

이러한 생활 패턴에 출생률의 격감까지 겹쳐 일본의 미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일본 후생성의 한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나라의 출생률은 지난 1974년의 가입여성 1인당 2.04명, 그리고 2차대전 직후의 4.5명에서 크게 떨어진 1.6명으로 줄어들었다.

후생성 자문위원회는 "고대 로마제국의 말기 증상처럼 출생률의 감퇴는 몰락하는 문명의 한 징후"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회는 곧 정부에 제출될 보고서에



일본에 '로마멸망 증후군' 우려

출생률 격감...직장인 스트레스도 한몫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잠 모자라

서 일본의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가족과 직장생활간의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쿄대 사학자 기무라 쇼자부로의 지도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각 회사들이 사내 탁아소를 운영, 근로여성들의 짐을 덜어주고 근무 시간에 신축성을 두어 아버지들에게 평일에도 자녀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현재 일본 샐러리맨들의 연간 근무시간은 2천1백시간으로 프랑스의 경우보다 3백

시간이 더 많다.

그러나 대다수 직장인들이 법정 휴가일조차도 제대로 찾아 쓰기를 주저하는 현재의 풍토로 보아 이러한 제안이 가까운 장래에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난 10년간 민간행 동단체를 이끌어 온 마스모 기요시는 말한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직장생활보다 가정생활 및 사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사정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연간 근무시간 1천8백시간이 실현되려면 멀었으나 종업원들의 여가 늘리기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공무원이 한달에 2번은 주말에 쉬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되기도 했다.

오는 6월 도쿄의 데이고쿠호텔은 호텔업계에서는 최초로 주 5일근무제를 실시, 1백20명의 시간제 종업원을 임시 고용할 예정이다. 이 호텔의 인사부장 요시다 세이지는 요즘 젊은이들이 "더 많은 돈 보다는 더 짧은 근무시간"을 원한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35~50살 연령층의 사무직 노동자 사이에 '과로로 인한 사망'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도쿄=AFP 연합〉